

## C-24. 치근분리술을 이용한 하악 대구치의 치근 이개부 병변의 처치

류지선, 김유강, 김지연, 나예진, 염철만, 정연주, 김옥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근 이개부 병변의 원인으로는 치태와 관련된 염증, 치수병소, 교합성 외상, 치근 파절, 치근 천공과 복합 병소가 있으며 치근 이개부의 이환 정도에 따라 비외과적인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이개부 성형술, 터널 형성, 치근 절제술, 재생술식 및 발치를 시행하여 치료할 수 있다.

치근분리술(root separation)은 하악 구치부의 Lindhe 등(1975)의 분류에 의한 깊은 degree 2와 degree 3의 치근 이개부 병변의 치료에 사용되는 술식으로 시행 전에 root trunk의 길이, root cone 사이의 이개 정도, root cone의 길이와 모양, root cone의 융합, 각 치근 주위의 잔존골 지지량, 각 치근의 안정성, 구강위생을 위한 기구의 접근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치근 절단술의 실패는 우식, 치근 파절, 치수병소, 치주병소로 구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주병소에 기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Hamp 등(1975), Langer 등(1981) 그리고 Carnevale 등(1990)은 3~12년에 이르는 후향적 장기 추적연구 결과로 62~100%의 성공률을 보고하였다.

본 임상증례에서는 하악 대구치의 치근 이개부 병변에 대한 처치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하고 3년 이상 추적하였을 때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